

청소년기 자녀 가족의 가정교육 연구

-가정교육 내용에 관한 척도 개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ome Education of Family with teenagers
-A Focus of Developing the Scale on the Content of Home Education-

전주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사 王錫旬

Dept. of Home Education, Jeonju University

Lecturer: Seok Soon, W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과 논의 |
| III. 연구 절차 및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the extraction of what is universally to be taught in modern Korean Families and its scalization. That is, it attempts to provide the criterion by which we can determine what to teach adolescent in the family, not in society or schoo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ly reviews the preceeding studies on the subject. As a result of the review, we postulate the hypothetical structure consisting of 11 domains. Secondly, we gather the parent's view on the topic by interviewing 496 parents with teenagers. On the basis of this study, we can construct the questionnaire(Likert scale; 5 point). After we conduct an extensive empirical research(346 parents) in order to generalize 195 items of the worked-out questionnaire. We apply factor analysis(principal axis factoring, oblique (promax) rotation) in the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As the consequence, we select 66 items consisting, 10 factors, which explain 68% of common variance. We name the 10 educational factors extracted in the scale as follows ; The Sense of Value, Communal Society, Sex, Esteem in the ancestor & a traditional way of life,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Culture life within the family, The Guide of Learning Way, Setting up the way of life, The

control of one's life, Friendship.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is the cronbach $\alpha = .91$ which turns out to be satisfactory.

I. 서론

질풍노도의 시기(조복희 외, 1989)로 묘사되는 청소년기는, 이 시기의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의 변화로 인해, 당사자인 자녀 본인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들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는, 다른 연령 대의 자녀들 보다 청소년 자녀를 훈육하는 것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다고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Silverberg & Steinberg, 1987).

청소년기 자녀 지도의 어려움은, 이 시기의 자녀를 둔 고금(古今)의 많은 부모들이 토로해온 고충이지만, 이러한 고충은 특히 근래에 들어 더욱 배가(倍加)되고 있는 듯하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 특히 가정생활의 환경 자체가 급변하는 현재의 상황은, 과연 어떠한 규범과 가치로 자녀를 지도하는 것이 바른 교육인지 부모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길어진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과연 어떠한 가정교육을 해야 건강한 사회인으로 길러 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현대의 부모들에게 더욱 부담스럽고 자신감 없는 숙제가 되고 말았다. 학교 폭력이나 가출·청소년 자살과 같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각종 청소년의 문제들, 그리고 소년 강력 범죄의 증폭은, 이같이 무규범화(化)되어 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실종된 가정교육의 탓(강지원, 1995)으로 종종 돌려지고 있다. 장현섭(1995)은 우리 사회 및 가족 생활의 무규범화의 근원이, 말할 것도 없이 참된 가정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이제 청소년기의 자녀 교육을 학교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본인은 학교 교육의 하청업자(지영숙, 1990)가 됨을 기꺼이 자청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교육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지영

숙, 1990)이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 부모들에게 적절한 가정교육에 관한 정보가 시급히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제적 요청에 근거하여, 최근에는 가정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이 차츰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들 중의 하나로 왕석순·서병숙(1996)은, 각 발달시기에 적용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정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우선 아동기 자녀를 위한 '가정교육 내용'에 관한 기준을 양적 척도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주장한 실제적 요청에 부응하고, 또 위 선행 연구(왕석순·서병숙, 1996)의 후속 연구로서, 청소년기 자녀 지도를 위한 '가정교육의 내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우리의 청소년기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한국적인 가정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관련문헌 등을 고찰·분석하여 제시하며, 이러한 이론적 분석 결과로 제시된 이론상의 내용구조를 대단위 실증 검사를 통해 규명하여, 양적 척도로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교육 내용

가정교육은 생활 교육의 형태로 수행되기 때문에(지영숙, 1990), 그 내용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상이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즉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유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정교육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따라 부모가 의도하는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는 데도 근거한다(왕석순·서병숙, 1996).

청소년기는 영아기 다음으로 신체적 성장 속도가 급등하는 시기이다(한국청소년 개발원, 1993). 이와 함께 아동기까지 잠재되어 온 이차적 성 특징들이

발현되며, 이러한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되기도 한다(장휘숙, 1995). 청소년기 자녀의 이러한 신체적·생리적 변화에 근거하여, 부모는 신체적 성장에 관한 지식은 물론이고, 본격적인 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한국청소년 개발원, 1993; 장휘숙, 1995; 이춘계 외, 1996 등). 성교육의 목표는 하나의 성인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사회인·배우자·부모로서의 역할을 배우도록 하는 데 있다(한국청소년 개발원, 1993).

이와 같은 성교육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에 근거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정체감 교육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한국청소년 개발원, 1993). 성역할 정체감은 한 인간의 자아 정체감의 핵심적인 부분(서봉연, 1991)으로, 신체적으로 뚜렷한 성차이가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중요 발달과업이 된다(김중서외, 1983).

한편,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질적으로 상이한 인지적 능력인 형식적 조작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Salkind, 1981). 그 결과 추상개념의 사용과 함께 가설적 추리 능력을 얻게 되며, 이로 인해 자기 성찰(self-examination)과 내성(introspection)에 몰두하게 된다(장휘숙, 1995). 이와 같은 자기 성찰이나 내성은, 자기 정체감의 형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정치·종교·도덕·이념문제 등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준다(이춘재외, 1996).

이와 같은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가정교육은 가치 및 신념의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야(牧野カツ, 1992) 할 것이다. 가치관 교육을 통해 청소년은 개인적 정체감의 발달은 물론이고, 사회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지혜에 관하여 역시 발달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김중서외, 1983; 이춘재외, 1996; 한국청소년 개발원, 1993). 실제로 많은 비행 청소년들은 자기 또래 아이들이 사회를 고려하는 단계로 들어설 때에도, 자기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인습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이춘재외, 1994). 따라서 청소년기의 사회 공동체 생활교육은 중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개인적 정체감을 발달시키면서, 미래 지향적인 시간 전망을 갖는다(조복희외, 1989). 미래의 직업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적 성취와 관련한 시간전망을 통해, 긍정적 자아상을 획득해 간다고 할 수 있는 데, 이와 관련한 부모들의 적절한 지원·진로 교육, 학습 지원 교육등-은 청소년기 가정교육의 주요 측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의 인지적 발달에 따라 이들 시기의 자녀들은 가설적 추리 능력을 발달시키고, 이와 함께 이상주의를 추구하게 한다. 이러한 인지적 능력은 세상의 결점과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고, 부모나 사회에 대해 반항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기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데, 만일 이러한 관계 변화에 융통성 있게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면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증폭될 수 있다(유은희, 1996). 특히 독립하려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부모를 단지 부모-자녀 관계라는 범주에서만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지각하기 시작하는 데(Blos, 1979), 전통적으로 미분화된 공생 관계를 이루면서 심리적 이유를 지연시키는 한국의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김재은, 1993)를 고집 한다면, 부모-자녀 관계는 크게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가정에서는 새로운 생활 문화가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별 가정의 교육을 통한 생활 문화의 전승은, 사회 전체로 확대해 볼 때 민족문화의 전달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홍우, 1994). 따라서 부모-자녀가 이루는 생활 안에서 전통 생활과 관련한 교육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 될 것이다.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와의 점진적인 심리적 이유와 함께, 완전한 자기 의존적인 개체 독립(전준우, 1990)을 위해, 자립적 생활 태도를 성취해 내야 한다. 따라서 자기 생활 관리와 관련한 가정의 여러 교육들-예를 들면 시간 관리, 소비생활 관리, 흡연·음주에 관한 지도 등등-은 자기 의존적인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인, 생활 교육의 핵심(이옥외, 1995)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려는 청소년

들은 반대로, 일생의 그 어느 시기에서 보다 우정이나 애정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정체감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동년배 집단은 일시적인 중간 문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장휘숙, 1995), 동년배 집단과의 관계 유지에 부모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어야 할 중요한 교육적 측면이 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대로, 청소년기의 신체 발달·인지 발달·심리적 발달의 특성을 지지해 주면서,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가정교육의 여러 내용은, 성교육(성역할 정체감 교육 포함), 가치관 교육, 사회 공동체 생활 교육, 진로 선택 및 학습 지원 교육, 부모-자녀 관계 교육, 가족의 생활 문화 교육, 자기 생활 관리 교육, 친구 관계 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절차 및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1) 제 1단계 - 가정교육 내용의 이론적인 가설적 구조

이론적 구조를 추출해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왕석순·서병숙(1996)이 아동기 자녀의 가정교육에 관한 내용구조를 추출해내기 위해 고려했던 6가지 준거 틀을 적용하였다. 6가지 준거 틀은, 각 발달시기의 발달 특성 고려, 가정에서만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합의된 사회적 덕목 적용, 부모 교육용 프로그램 내용 참조, 중·고 생활기록부 행동 발달 평가 기준 적용, 선행 연구 결과 참조 등이다. 아동기의 가정교육 내용과 공통적인 준거 틀을 채택함으로써, 아동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총 10개의 영역으로 대별된 가정교육의 내용 구조를 추출하였다. 이는 성교육·성역할 정체감 교육·진로 선택 관련 교육·학습지원 교육·가치관 교육·친구관계 교육·부모-자녀관계 교육·자기 생활 관리 교육·가족의 생활문화 교육·사회공동체적 생활교육의 10개 영역이다.

(2) 제 2단계 - 의견 수집과정(면접 조사)

이론적으로 추출해 낸 내용 구조에 근거하여, 총 496쌍의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96년 9월~10월의 두 달간 개방형 질문지에 의해(면접과 조사법 병행) 자료를 수집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그들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질문하고, 청소년 자녀에게는 부모님께 원하는 가정교육에 관하여 질문한 후, 이에 대한 7가지 이상의 응답을 기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면접 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1단계에서 추출해낸 10개 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빈도 처리한 후, 문항 自作에 적극 반영했다. 이상의 제 1, 2 단계의 과정을 거쳐, 가설적인 10개 영역에 따른 212개 문항의 1차 예비 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3) 제 3단계 및 4단계 - 문항 작성 및 예비 조사

제 3단계 - 지도교수와 가정학 전공 교수 1인에게 작성한 212개 문항의 예비 질문지에 대한 문항 적합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자녀 지도에서 서로 대치될 수 있는 가치를 반영한 항목은 다소 중복되더라도 서로 다른 문항으로 문항화 하였다. 예를 들어 음주를 금지시킨다(152번)와 음주 예절을 가르친다(153번)와 같은 문항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 생활 관리 교육과 관련된 문항중 소비생활 교육과 관련된 항목을 따로 구분해 내어 총 11개 내용 구조의 영역으로 재구분했다. 또 일부 내용의 수정이나 가감을 통해, 총 195개 문항의 2차 예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제 4단계 - 97년 2월 17일~2월 21일간 총 15쌍(30명)의 학부모 및 그의 자녀를 대상으로 2차 예비 질문지에 의한 예비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내용 전달이 어려운 일부 문항을 손질하였다. 또 다소 중복되고 긴 질문지의 응답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질문지 구성시 굵은줄로 11개 내용 영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그러나 문항 수는 195개 문항으로 유지되었다.

(4) 제 5단계 - 대단위 실증 조사

4단계를 통해 확정된 195개 문항을 갖는 질문 척

도에 대하여 대단위 실증 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지는 현재의 청소년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가정교육이 무엇인가를, 그 필요도에 따라 평점케 하는 자기보고식의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였다. 5단계의 평정 척도는 매우 필요하다고 평정한 문항엔 5점을,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평정한 문항엔 1점을 주어 각 문항에 대한 필요 정도를 점수와 하였다. 또 통계 절차를 적용하여 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2.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형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아동기 특성이 더 강한 중학교 1학년생과, 현실적으로 입시에 치중된 고등학교 3학년생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북 전주를 중심으로 인근 군산과 남원, 익산 지역의 학부형을 대상으로 무선적으로 표집하였다.

조사는 97년 3월 3일~14일까지 실시하였는 데, 총 500부를 배부하여 38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중 질문지 응답에 50% 이상 누락이 있거나, 응답점수가 동일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 또는 기초자료 내용이 모두 누락된 경우는 제외하여, 총 346부(약 70%)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인구·경제학적인 일반적 배경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어머니)의 응답이 67.6%로 남성(아버지) 응답자 수(32.4%)보다 많았다.

남·녀 응답자 모두 고졸 학력이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 사무직·교사 등의 직업과 자영 상공인의 직업 분포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취업 주부(34.6%) 보다는 비취업주부(65.4%)의 분포가 많았다. 소득은 151~200만원(25.1%)의 자가 주택(88.3%)을 가진 중류 소득 가정이 가장 많았고, 양친이 있는 핵가족 유형(79.4%)의 가족 형태가 가장 많았다. 또 고등학생(72.4%)인 딸(52.0%)을 대상으로 한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은 조사 대상의 가정 환경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 특성에 관한 요약이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특성	사례수	빈도
성별	남(아버지)	109	32.4
	녀(어머니)	227	67.6
	계	346	100.0
연령	부(男)	3 5 ~ 4 0 세	6 5.5
		4 1 ~ 4 5 세	29 26.6
		4 6 ~ 5 0 세	38 34.9
		5 1 세 이 상	36 33.0
	모(女)	3 5 ~ 4 0 세	36 15.9
		4 1 ~ 4 5 세	103 45.4
4 5 ~ 5 0 세		71 31.3	
5 1 세 이 상	17 7.5		
학력	부(男)	국 중 고 전 대	2 1.9
		중 고 전 대	7 8.7
		고 전 대	49 55.8
		대 이 상	7 6.7
	모(女)	국 중 고 전 대	11 5.0
		중 고 전 대	39 17.6
고 전 대		117 52.9	
대 이 상		21 9.5	
33 15.0			
직업	부(男)	농 · 임 · 어 · 사 · 전 문 직 · 무 기	6 5.9
		도 고 자 사 전 문 직 · 무 기	19 18.8
		· 용 영 · 사 무 직 · 문 직 · 기	23 22.8
		· 생 기 상 공 사 교 사 기 고 급 관 리	27 26.7
		· 산 술 인 등 직 직 관 리 직 타	14 13.9
		· 직 인 등 직 직 관 리 직 타	8 7.9
3 3.0			
1 1.0			
모(女)	취 비	72 34.6	
	취 업	136 65.4	
소득	1 0 0 만 원 이 하	77 22.3	
	1 0 1 ~ 1 5 0 만 원	82 23.7	
	1 5 1 ~ 2 0 0 만 원	87 25.1	
	2 0 1 ~ 2 5 0 만 원	28 8.1	
	2 5 0 만 원 이 상	72 20.8	
종교	무 불 기 천 기	108 32.4	
	독 주	36 10.8	
	기 타	155 46.5	
	교 교 교 타	32 9.6	
2 0.6			
가족 형태	핵 편 가 족	273 79.4	
	확 대 가 족	19 5.5	
52 15.1			
가혼 여부	있 음	188 61.0	
	없 음	120 39.0	
주택소유 현황	자 임 가 대	288 88.3	
	38 11.7		
주택 형태	단 아 파 트 및 기	164 51.1	
	독 주 다 세 대 주 택	151 47.0	
	6 1.9		
자녀 성별	남	144 48.0	
	녀	156 52.0	
자녀 학교 상황	중 학 교 재 학	82 27.6	
	고 학 교 재 학	215 72.4	
자녀의 형제 관계	외 첫 중 막	43 14.4	
	첫 중 막	94 31.4	
	중 막	75 25.1	
	내	87 29.1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했다. 문항 양호도는 χ^2 검증을 한 후, 그 지수로서 Cramer의 V 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했다. 또 이러한 문항 양호도 검사의 검증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 개별 문항과 척도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척도의 신뢰도 검사는 Cronbach의 α 를 산출하여 검증했다. 이상의 모든 과정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문항 양호도

본 척도는 5점 Likert 평정 척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응답 유무의 상대적 반응 비율이 기대하는 대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문항 양호도를 분석했다. 그 방법으로 응답 총

점 분포의 상·하위 25% 집단에 대한 χ^2 검증을 하고, 그 지수로서 Cramer의 V 계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총 33개 문항의 χ^2 값이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지 못하거나, Cramer's V 계수가 Ahman과 Glock (1967, 유명주·어은주 1995에서 재인용)이 만족스러운 변별도 기준으로 제시한 .25이상에 못 미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와 같은 판별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재적용 하였다. 이 방법은 척도의 총점과 개별 문항간의 상관 계수를 구하여 일정 수준의 상관 계수를 가진 문항만을 양호한 문항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Guiford와 Fruchter (1973)가 제시한 .30~.80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김순옥, 1988 재인용)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총 46개 문항이 $P < .001$ 수준에서 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χ^2 분석이나 Cramer's V 계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문항은,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총 46개 문항을 타당도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표 2〉 참조).

〈표 2〉 척도문항 내용 및 χ^2 , Cramer's V, 상관관계 결과표

(○ 표시된 문항은 요인분석후 최종 선택된 문항을 의미, ▲는 기준 미달로 제외된 문항임,

가로의 굵은 줄은 이론적인 11개 내용구조의 영역구분임)

문항	문항내용	χ^2	Cramer's V	상관관계
○1	자녀의 신체변화에 관심을 갖고 살핀다.	55.910	0.565	0.450
○2	생리적 변화(초경 또는 몽정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45.019	0.507	0.439
○3	여성과 남성의 생리상의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해준다.	63.054	0.600	0.443
○4	성적 충동이나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르친다.	46.879	0.518	0.409
○5	임신과 출산의 원리와 같은 기초적인 성의 지식을 말해준다.	51.205	0.541	0.415
○6	피임의 방법 등에 관하여도 설명해준다.	36.983	0.460	0.382
○7	남녀간 성 윤리에 관하여 가르쳐 준다.	43.443	0.498	0.402
○8	순결 또는 동정의 소중함을 가르친다.	47.186	0.519	0.403
9	자녀의 신체변화에 대하여 격려하거나 확신감을 준다(키는 꼭 크다 등).	37.340	0.432	0.338
10	이성교제를 금지시킨다.	7.076▲	0.201▲	0.138▲
11	이성친구를 사귄때는 부모에게 먼저 소개시키도록 한다.	30.063	0.414	0.316
12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행동과 생각을 강조한다.	11.927▲	0.261	0.233
13	행동과 생각에 여자다움이나 남자다움을 강조하지 않는다.	7.099▲	0.201▲	0.030▲
14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의 기준을 명확히 가르친다.	9.493▲	0.233▲	0.218▲
15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수행할 수 있도록 깨우쳐 준다.	14.261▲	0.285	0.276▲
16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한다.	24.029	0.371	0.267▲
17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를 달리한다.	11.478▲	0.256	-0.069▲
18	상징적인 성인의식을 치워준다.	32.047	0.428	0.277▲

〈표 2〉 계속

문항	문항내용	χ^2	Cramer's V	상관관계
19	자녀에게 부모의 적당한 기대감을 표현한다.	21.305	0.349	0.258▲
20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53.938	0.555	0.422
21	부모님의 일터에 자녀를 데려와 하는 일을 설명해준다.	34.521	0.444	0.348
22	부모의 인생경험담을 들려준다.	40.691	0.482	0.370
23	평범한 주변어른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관하여 이야기 해준다.	35.181	0.448	0.368
24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 해준다.	35.303	0.449	0.363
25	문과나 이과반의 선택은 부모의 의지에 따르게 한다.	5.668▲	0.180▲	-0.075▲
26	진로결정은 자녀의 적성에 따라 자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44.054	0.502	0.333
27	부모의 직업을 계승할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이끈다.	3.797▲	0.147▲	0.074▲
28	사회에서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진로지도를 한다.	1.783▲	0.101▲	0.086▲
◎ 29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태도 등에 관하여 가르친다.	37.134	0.461	0.378
◎ 30	자녀가 본인의 능력·적성·흥미·성격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64.150	0.605	0.510
◎ 31	폭넓은 진로 정보(요구되는 교육정도, 내용, 전망 등)를 제공한다.	46.273	0.514	0.448
◎ 32	자녀지도는 자녀의 소질 계발에 역점을 둔다.	59.362	0.582	0.512
33	직업선택의 필요성을 확인시키고 강조한다.	46.098	0.513	0.430
34	직업계획과 교육계획을 짜보도록 유도한다.	48.644	0.527	0.414
◎ 35	목표의식을 가지도록 격려해 준다.	54.977	0.560	0.484
◎ 36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33.371	0.437	0.335
37	숙제를 했는지 점검해 준다.	15.359▲	0.296	0.249▲
38	성적이 뒤처지거나 흥미없는 과목을 직접 가르쳐준다.	16.285▲	0.305	0.271▲
39	중요과목에는 과외공부를 시킨다.	7.944▲	0.213▲	0.152▲
40	정규 학교 공부외의 과외수업은 시키지 않는다.	8.435▲	0.220▲	0.075▲
41	성적표를 꼼꼼이 검토하여 성적관리에 관심을 가진다.	20.915	0.346	0.292▲
42	성적관리는 자녀 본인에게 맡긴다.	10.734▲	0.278▲	0.109▲
43	공부하라는 말을 자주하여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해준다.	1.295▲	0.086▲	0.072▲
44	공부하라는 말은 일체 하지 않는다.	5.434▲	0.176▲	0.019▲
45	공부시간과 공부의 양에 관해 늘 점검해 준다.	9.124▲	0.228▲	0.204▲
◎ 46	부모가 늘 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	60.938	0.590	0.467
◎ 47	자녀에게 필요한 학습자료들을 구해준다.	59.885	0.585	0.445
◎ 48	자녀와 서점에 함께가서 책들을 사준다.	53.831	0.555	0.409
◎ 49	자녀에게 선생님에 관하여 자주 묻고, 관심을 표현한다.	54.125	0.556	0.429
◎ 50	자녀에게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	67.486	0.621	0.496
◎ 51	자녀문제로 답답교사와 상담을 한다.	60.924	0.590	0.489
52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를 자주 나눈다.	60.135	0.586	0.437
53	성실한 학교생활을 강조한다.	55.255	0.562	0.482
54	위험한 장소나 학교길은 피하도록 주의를 준다.	42.548	0.493	0.407
55	컴퓨터 등의 정보화 교육에 관심을 가져준다.	47.867	0.654	0.547
56	독서를 권장한다.	78.036	0.668	0.526
57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길러준다.	94.098	0.733	0.562
58	타인의 장점을 수용할수 있는 태도를 강조한다.	77.188	0.664	0.519
59	누구에게도 지지않는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한다.	8.452▲	0.220▲	0.165▲
◎ 60	실패나 좌절을 인내하며, 이겨낼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72.737	0.645	0.516
◎ 61	자신감(자긍심)을 길러준다.	74.764	0.654	0.543
◎ 62	자기 절제의 방법을 가르쳐준다.	86.218	0.702	0.566
◎ 63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를 길러준다.	97.745	0.747	0.588
◎ 64	사회악이나 부조리에 대한 정의심을 길러준다.	77.027	0.663	0.545
◎ 65	자립심을 강조한다.	69.483	0.630	0.512
◎ 66	비굴하지 않은 주체적인 정신을 강조한다.	81.496	0.682	0.551
◎ 67	환경과 상황에 대한 순응성을 강조한다.	55.493	0.563	0.480
◎ 68	자기주장을 정확히 전달할수 있도록 가르친다.	86.224	0.702	0.550
◎ 69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0.905	0.680	0.559
70	성실한 태도와 행동을 강조한다.	68.868	0.627	0.495
71	정직한 태도와 행동(거짓말 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3.682	0.692	0.533
◎ 72	봉사활동에서 기쁨을 느낄수 있도록 지도한다.	85.740	0.700	0.590
73	양보심을 길러준다.	71.788	0.640	0.523
74	도전의식을 강조한다.	50.567	0.538	0.447
◎ 75	인생의 최고 가치는, 즐겁게 사는데 있음을 일깨워 준다.	32.883	0.433	0.317
◎ 76	유모어 의식을 강조한다.	35.397	0.450	0.342
77	일(노동)의 가치를 강조한다.	55.951	0.565	0.477

〈표 2〉 계속

문항	문항내용	χ^2	Cramer's V	상관관계
◎ 78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66.549	0.617	0.521
◎ 79	자녀의 친구부모와 알고 지낸다.	43.639	0.499	0.392
80	자녀의 친구와도 이야기를 나눈다.	59.306	0.582	0.521
81	자녀의 친구를 집에 데려와 함께 지낼수 있도록 배려한다.	57.584	0.574	0.449
82	친구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35.739	0.452	0.366
83	신의를 지키는 친구가 되도록 가르친다.	61.971	0.595	0.447
84	친구간의 예의에 대해 가르친다.	71.129	0.638	0.514
85	자녀의 친구문제는 간섭하지 않는다.	24.826	0.377	0.176▲
86	좋은 친구를 사귀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64.563	0.607	0.461
87	부모 마음에 내키지 않는 친구를 사귄때는 절교 등을 조언한다.	11.768▲	0.259	0.181▲
88	자녀의 클럽활동을 반드시 점검한다.	53.001	0.550	0.435
89	청소년 클럽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배려한다.	44.800	0.506	0.421
90	친구끼리의 여행을 허락해 준다.	25.811	0.384	0.122▲
91	친구끼리의 여행을 금지한다.	2.546▲	0.118▲	0.029▲
92	부모·자녀간의 신뢰와 믿음을 강조한다.	83.294	0.690	0.556
93	집밖의 일은 나갔다 들어오면 보고하게 한다.	38.451	0.469	0.382
94	부모세대의 가치관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한다.	30.481	0.417	0.334
95	부모세대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다.	23.467	0.366	0.296▲
96	자녀세대의 가치관을 인정해 준다.	56.892	0.570	0.440
97	체벌은 사용하지 않는다.	7.215▲	0.203▲	0.152▲
98	매를 아끼지 않는다.	7.818▲	0.211▲	0.095▲
99	자녀에게는 꾸중보다는 칭찬이나 격려를 더 많이 해준다.	59.032	0.581	0.452
◎ 100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강조한다.	73.980	0.650	0.543
◎ 101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친다.	61.834	0.594	0.515
◎ 102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한다.	51.617	0.543	0.456
103	부모가 모든 일에 먼저 모범을 보인다.	59.761	0.584	0.528
◎ 104	부모·자녀간의 솔직한 감정을 교환한다.	62.328	0.597	0.468
105	자녀를 성인처럼 대우해 준다.	47.472	0.521	0.379
106	나이가 들어도 자녀는 자녀답게 대우한다.	15.548▲	0.298	0.302▲
107	화목한 부부애를 보인다.	62.175	0.596	0.467
◎ 108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든다.	71.479	0.639	0.402
109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준다.	6.826▲	0.197▲	0.052▲
◎ 110	자녀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52.364	0.547	0.451
111	부모·자녀간의 비밀을 인정하지 않는다.	8.717▲	0.223▲	0.140▲
112	자녀의 사생활을 인정한다.	25.241	0.380	0.288▲
113	부모·자녀간의 평등한 대화시간을 만든다.	68.119	0.624	0.524
114	부모·자녀간의 정기적인 대화시간을 만든다.	67.407	0.621	0.490
115	부모에게는 존대말을 사용하도록 가르친다.	45.754	0.511	0.404
116	자녀에게도 반말이나 비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50.587	0.538	0.388
117	부모의 외출과 귀가시에는 출입 인사를 시킨다.	65.100	0.610	0.512
118	부모는 자녀를 친구처럼 대하려고 노력한다.	45.782	0.511	0.427
119	부모는 상호간의 교육방침을 존중한다.	55.509	0.563	0.501
120	자녀귀가시 어머니가 대체로 집을 지키고 있다.	34.504	0.444	0.326
121	부모말씀에는 일단 순종시킨다.	23.569	0.367	0.279▲
122	부모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곧바로 본인의 의견을 말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33.626	0.438	0.384
123	형제나 이웃친구와 비교하여 뒤떨어지지않게 가르친다.	14.689▲	0.290	0.215▲
124	형제나 이웃친구와는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	36.565	0.457	0.308
125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한다.	59.730	0.584	0.462
126	형제간의 상하질서를 지킴하도록 한다.	69.737	0.631	0.510
127	편애(형제 자매간)를 하지 않는다.	71.145	0.638	0.417
128	자녀에게 부모의 종교를 따르도록 한다.	28.131	0.401	0.252▲
129	자녀에게 부모의 종교윤리에 대해 가르친다.	27.324	0.395	0.284▲
130	종교의 선택은 자녀에게 일임한다.	14.467▲	0.288	0.038▲
131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강조한다.	70.961	0.637	0.519
132	자녀나름의 자율적인 생활규칙을 인정한다.	56.388	0.568	0.434
133	시간을 아껴쓰도록 지도한다.	63.869	0.604	0.514
134	시간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가르친다.	77.287	0.665	0.505
135	기상시간을 정한후, 지키게 한다.	60.258	0.587	0.456
136	일정한 귀가시간을 정한후, 지키도록 규제한다.	63.867	0.604	0.508

<표 2> 계속

문항	문항내용	χ^2	Cramer's V	상관관계
137	전화사용에 관하여 지도(장시간 전화독점, 늦은 시간 전화등)한다.	35.609	0.451	0.337
138	전화사용에 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10.897▲	0.250	0.119▲
139	외박을 금지시킨다.	33.544	0.438	0.349
140	외박은 경우에 따라 허용한다.	4.512▲	0.161▲	0.060▲
141	행선지는 부모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45.885	0.512	0.431
142	가족내 규칙을 지키도록 가르친다.	73.798	0.649	0.551
143	지나친 소식이나 폭식을 하지 못하도록 살펴준다(다이어트 등).	51.563	0.543	0.442
144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일정한 식사시간을 지킬수 있도록 살펴준다.	71.587	0.640	0.526
145	편식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77.837	0.667	0.564
146	적절한 운동을 시킨다.	67.263	0.620	0.534
147	적절한 스포츠 종목을 취미로 할수 있도록 가르친다.	67.453	0.621	0.505
148	TV, 라디오 등의 시·청취를 제한한다(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제한함).	43.155	0.497	0.400
149	어떤 종류의 대중매체를 접하는지 눈여겨 본다(음란도서구입등 통제).	58.280	0.577	0.496
150	대중매체의 선택에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16.720▲	0.309	0.235▲
◎ 151	흡연을 금지시킨다.	33.811	0.440	0.309
◎ 152	음주를 금지시킨다.	29.173	0.408	0.318
◎ 153	음주 예절을 가르친다.	35.196	0.448	0.385
154	자녀가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머리모양이나 옷차림을 하면, 적극 제재한다.	15.738▲	0.300	0.240▲
155	자녀의 머리모양이나 옷차림에는 일체 간섭을 않는다.	8.397▲	0.219▲	0.046▲
156	인간관계에 필요한 처세술을 가르쳐준다.	50.999	0.540	0.448
157	검소한 생활을 강조한다.	67.163	0.620	0.494
158	용돈을 합리적으로 관리(용돈 기록장 작성등)하도록 지도한다.	75.842	0.658	0.533
159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가르친다.	80.133	0.677	0.554
160	용돈을 적게주어 절제를 가르친다.	36.700	0.458	0.357
161	집안일을 했을때만 용돈을 주어 돈의 가치를 깨우쳐 준다.	23.224	0.364	0.255▲
162	친구들에게 궁색하게 보이지 않도록 용돈을 넉넉하게 준다.	8.827▲	0.225▲	0.114▲
163	물건을 살때는, 유통상표에 집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9.894	0.413	0.351
164	사장이나 슈퍼 또는 백화점등에 자녀를 되도록이면 데려가서, 물건 구입을 함께 하는 기회를 만든다.	73.905	0.60	0.533
165	본인의 옷이나 신발등은 스스로 구입해 볼수 있는 기회를 준다.	41.974	0.490	0.378
166	자녀에게 적당한 아르바이트를 권장한다.	29.829	0.413	0.283▲
◎ 167	온가족이 친할수 있는 기회(소풍,운동등)를 마련한다.	71.013	0.637	0.494
◎ 168	자녀와 함께 건전한 게임을 함께 한다.	78.024	0.668	0.564
◎ 169	휴일은 온가족이 함께 보낼수 있도록 노력한다.	69.980	0.632	0.533
◎ 170	가족과 지내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수 있도록, 온가족에게 당부한다.	62.226	0.596	0.492
◎ 171	건전한 여가를 보낼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83.905	0.692	0.582
◎ 172	전람회·음악회 등에 참여할수 있도록 배려한다.	76.117	0.660	0.555
◎ 173	가족과 외식을 정기적으로 한다.	31.477	0.424	0.372
◎ 174	자녀와 여행을 함께한다.	66.026	0.614	0.486
175	자녀에게 가족들과 집안일을 함께 하게 한다.	72.949	0.646	0.509
176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77.333	0.665	0.528
177	가족간의 화목을 강조한다.	78.362	0.669	0.549
178	가족이 하루 한끼의 식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70.416	0.634	0.529
◎ 179	집안 행사(성묘, 제사등)에 참여시킨다.	46.571	0.516	0.401
◎ 180	가훈을 가르친다.	78.042	0.668	0.526
◎ 181	가문의식(예:족보가르치기등)을 심어준다.	52.874	0.550	0.457
◎ 182	가례(예:제사상 차리는 법등)에 대해 가르친다.	56.006	0.566	0.379
◎ 183	친척간의 존수에 대해 가르친다.	63.788	0.604	0.467
◎ 184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을 강조하고, 예의를 가르친다.	80.122	0.677	0.540
◎ 185	아랫사람을 대하는 예절을 가르친다.	88.306	0.710	0.587
◎ 186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	82.954	0.688	0.567
◎ 187	사회질서를 지키도록 가르친다.	94.718	0.736	0.611
◎ 188	공익을 존중하도록 가르친다.	87.077	0.705	0.614
◎ 189	이웃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할수 있도록 지도한다.	79.510	0.674	0.559
◎ 190	쓰레기 분리 수거를 가르친다.	69.000	0.628	0.512
◎ 191	환경오염 물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가르친다.	79.223	0.673	0.589
192	다른사람을 배려해 주는 태도와 행동을 가르친다.	68.501	0.626	0.522
◎ 193	협동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85.865	0.700	0.586
194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보전·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친다.	50.994	0.540	0.485
195	외국문화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시킨다.	58.557	0.578	0.497

2. 타당도

척도 구성의 타당성은 문항 양호도 검증을 통해 기준 안의 것(본 연구에서는 .30~.80)만을 골라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다(홍두승, 1987).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가설적인 가정교육 내용 영역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주요인분석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적용하였다(표 3). 가정교육의 각 영역들은 이론상 상관관계가 깊고, 통계적 요인간 상관행렬표(〈표 4〉 참조)를 보더라도 요인간 상관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각회전(Promax Rotation)을 적용하였다. 한편 요인의 수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고유치(eigenvalue) 1.0이상의 기준이다. 그런데 변수의 수(질문지 문항수)가 40개 이상일 때 이 기준이 적용되면 그 결과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Cattle(1966)이 제안한 스크리 검정(scree test)결과와 총분산의 75% 이상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요인의 수를 확보하는 기준을 혼용하기로 했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의 수는 26개 였으나, 스크리 검정 결과 고유치가 수평으로 변하는 지점은 15개 요인부터 였다. 일정한 법칙은 없으나, Gilford(1952, 이영준 1993 재인용)는 요인의 수는 최대 15개까지가 적절하다고 했다. 또 15개 요인 지점에서 요인 수를 결정할 때, 이론적인 내용 구조상 설정한 11개 요인이 확인되고, 15개 요인 지점이 총분산의 75%에는 미치지 못하나 70%에 근사한 약 68%의 분산을 설명해 주는 지점이 되므로, 통계상의 최종 요인은 15개 요인으로 결정하였다(〈표 3〉 참조).

한편, 각 요인의 해석에 사용될 최종 문항의 선택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첫째,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 .30 이상이 되

는 변수를 선택한다는 기준이다(이영준, 1993). 각 변수가 해당 요인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형태계수행렬표¹⁾에서 살펴보면, .30에 못 미치는 문항은 요인 1의 72번 문항(.22)과 요인 2의 184번 문항(.26)의 2개 문항이다. 그러나 요인들과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구조계수행렬표상에서 살펴보면(〈표 3〉 참조), 이들 2개의 요인간 상관 계수는 .54와 .5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최종 문항 선택에서 이들 문항을 제외시키지 않았다. 둘째, 각 변수의 공통분(communality)이 낮은 문항은 제외시킨다(이순목, 1995)는 기준이다. 첫 번째 기준에서 문제성이 보였던 문항의 공통분이 각각 .75와 .73이므로(표 3), 이들 문항을 요인 설명을 위한 최종 문항으로 선택해도 무리가 없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2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구조계수행렬표(표 3)에서 각 요인으로 묶인 문항 모두를 요인 해석을 위한 최종 문항으로 선택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된 총 15개 요인의 66개 문항에 대한 통계적 결과를, 이론적 배경에서 구조화한 11개 내용 구조와 관련하여 재조정하여, 명명을 시도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33.57%를 설명하며, 가치관 형성과 관련된 문항에 요인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요인 14로 묶인 75번과 76번 문항도 인생에 관한 가치관 교육 영역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이므로, 요인 1과 요인 14를 이론적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두 요인을 묶어 「가치관 교육」으로 명명했다. 요인 2는 공익이나 환경오염, 사회적 예절에 관한 문항에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나, 「사회공동체적 생활교육」으로 명명했다. 요인 3은 신체적 변화와 생리적 변화를 지지해 주면서, 성교육과 관련한 문항에 부하량이 높게 나타나 「성교육」으로 명명했다. 요인 4는 이론적 내용 구조에서는 가족의 생활문화 교육의 한 부분으로 분류한 가문의식·가훈·가례와

1) 직교회전과는 달리 사각회전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엔, 표준화된 선형 가중치를 보여주는 형태계수행렬과 각 요인들과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 주는 구조계수 행렬이 같을 수 없다. 따라서 두 가지 행렬을 모두 보고해야 하나, 지면이 허락하지 못할 경우엔 보통 형태계수행렬은 생략한다. 이는 형태계수행렬을 보고하지 않아도 구조계수행렬=(형태계수 행렬)×(요인상관행렬)이므로 구조계수 및 요인상관 행렬만 있어도 형태계수 행렬은 간단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순목, 1995).

<표 3> 회전후(Promax Rotation) 요인구조(Factor Structure(Correlations4)) 요인 수=15, n=346

	Fact1	Fact2	Fact3	Fact4	Fact5	Fact6	Fact7	Fact8	Fact9	Fact10	Fact11	Fact12	Fact13	Fact14	Fact15	h ²
X62	77	42	31	17	35	27	22	31	21	29	31	12	15	23	1	77
X61	73	34	30	11	39	30	17	41	28	33	31	17	8	19	13	77
X65	71	38	29	24	36	27	17	27	18	19	14	20	14	15	15	73
X60	70	28	29	20	34	23	31	37	15	30	23	5	11	16	3	71
X63	69	46	32	13	44	37	21	40	33	27	33	16	12	28	19	79
X67	56	35	27	28	24	-2	18	7	12	4	14	9	16	26	1	68
X66	66	42	34	25	31	26	24	39	23	10	13	13	9	31	15	77
X64	59	41	31	16	29	37	6	26	15	27	13	16	13	28	7	71
X69	66	34	36	19	34	23	32	29	21	33	5	24	20	18	-9	78
X68	58	33	32	19	41	20	34	38	22	45	8	23	16	35	-6	74
X72	54	47	31	16	37	37	14	33	25	9	28	12	15	35	3	75
X188	42	81	34	35	40	33	22	34	22	21	25	12	26	19	3	81
X187	40	75	29	32	44	29	21	27	22	27	18	9	19	24	2	82
X189	42	74	24	23	38	27	15	38	31	26	20	17	23	23	12	75
X186	36	70	36	39	34	27	14	14	8	24	22	-3	17	23	-7	79
X191	34	64	31	24	48	29	11	33	12	23	20	20	22	36	-4	79
X193	44	64	36	26	41	29	6	30	33	15	17	28	13	10	10	77
X185	43	70	39	43	32	16	25	30	23	23	22	-3	16	7	1	76
X190	30	55	22	16	33	31	5	37	17	24	19	14	14	37	6	73
X184	43	55	29	35	42	16	17	25	31	26	21	11	8	5	19	73
X4	29	23	77	12	17	26	8	26	4	14	18	11	19	21	4	78
X5	29	21	77	21	14	22	20	18	8	22	11	10	15	14	-7	81
X3	27	28	76	19	22	26	28	19	-1	18	21	3	22	12	-11	75
X7	32	28	73	18	18	21	13	26	9	12	12	19	-1	3	2	72
X2	27	32	72	12	24	22	32	26	2	26	11	14	27	6	-7	70
X6	31	11	63	15	8	26	8	15	-5	9	11	8	-2	11	-13	68
X1	28	33	61	3	24	30	30	19	2	12	4	11	27	20	-5	69
X8	25	26	59	11	23	23	14	17	17	16	12	26	7	10	8	66
X181	24	39	20	78	26	28	11	8	23	19	16	8	20	7	-5	81
X182	20	32	19	78	26	11	15	10	16	6	9	11	17	9	2	75
X180	36	42	26	70	31	29	10	21	20	22	15	17	15	3	-1	75
X179	20	29	17	56	28	18	14	12	29	12	4	20	12	8	15	65
X183	17	49	28	57	26	21	12	22	14	24	14	6	18	2	-6	69
X101	42	39	22	22	82	32	22	26	27	26	17	13	12	16	8	80
X100	37	43	21	29	78	21	24	27	36	20	10	24	9	16	19	77
X102	36	38	21	22	69	18	13	20	27	26	20	8	6	23	8	71
X168	35	37	32	18	32	73	35	29	16	33	22	13	42	19	-2	77
X167	26	28	34	27	24	72	30	32	12	20	14	19	33	12	0	74
X169	29	35	36	32	32	66	19	31	12	21	24	6	29	21	-13	73
X170	33	28	28	27	35	49	28	23	12	24	20	5	40	16	-21	62
X171	43	44	33	26	43	55	32	25	16	22	17	4	44	18	-18	72
X47	27	23	28	14	22	28	66	27	12	21	29	12	26	19	9	68
X48	27	22	20	10	33	24	68	27	14	27	23	17	27	10	-1	69
X46	31	27	27	25	30	23	61	36	13	29	27	14	29	7	12	70
X31	37	28	30	7	23	28	22	74	13	32	23	9	24	21	8	74
X29	29	26	16	16	30	12	26	59	16	16	6	2	25	6	13	68
X30	41	39	35	15	38	30	36	71	17	22	15	19	26	14	9	72
X32	43	29	34	6	34	29	18	56	21	38	25	18	20	42	4	73
X152	17	19	7	20	31	7	12	10	68	13	10	5	2	4	-3	74
X151	19	17	5	12	24	15	9	9	73	18	22	11	1	15	0	69
X153	31	20	21	20	24	15	7	22	47	19	14	2	9	19	6	54
X104	37	36	24	15	28	32	22	29	18	68	21	14	16	20	0	74
X108	38	36	24	14	34	23	17	31	31	54	20	10	18	13	16	71
X110	32	30	23	23	32	19	35	34	12	55	0	14	34	5	-8	63
X51	31	30	27	19	19	26	32	29	17	17	66	24	28	14	6	76
X50	33	32	32	12	26	30	34	17	18	15	63	15	18	13	13	70
X49	35	31	30	14	28	23	48	34	12	14	53	15	23	3	5	69
X79	21	18	20	24	21	19	25	13	9	16	12	62	14	5	-4	69
X78	31	34	30	22	28	20	19	26	23	8	26	59	21	23	-2	66
X173	18	17	20	23	9	32	27	18	4	13	18	7	63	16	-10	64
X174	18	38	30	25	25	37	27	37	12	20	13	14	67	13	-7	68
X172	38	36	34	26	33	44	44	33	10	33	10	9	60	10	-18	75
X75	20	22	15	12	19	24	6	8	8	6	11	6	18	68	3	71
X76	25	15	16	12	10	14	17	11	5	8	9	15	13	49	-11	65
X36	36	21	16	11	29	14	22	31	17	17	25	8	2	14	56	69
X35	33	30	22	13	41	19	27	34	20	25	19	11	14	25	48	77

관련된 문항들로 묶여졌는데, 아동기 가정교육 내용과의 연계성(왕석순, 1996)을 고려하여, 「조상과 전통생활 존중교육」으로 재분류하여 명명하였다. 요인 5와 요인 10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孝 그리고 현대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규범으로서 제시한 솔직한 감정교환등의 내용에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므로, 2개 요인을 묶어서 「부모-자녀 관계 교육」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과 요인 13은 부모와 자녀가 여행·운동 또는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문항에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개 요인을 역시 묶어서 「가족의 생활문화 교육」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7과 요인 11은 자녀의 학습이나 학교생활의 지원과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역시 2개의 요인을 이론상 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학습지원 교육」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8과 요인 15도 문항의 내용이 진로 선택과 관련한 문항에 요인부하량이 높아서, 「진로 선택 지원 교육」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9는 음주나 흡연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기 생활관리 교육」으로, 요인 12는 우정과 관련된 문항으로 「친구관계 교육」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따라서 통계적 결과에 의해 총 1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최종 선택된 문항의 내용과 이론적 내용 구조를 고려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가정교육의 내용 요인은 최종적으로 총 10개 요인으로 확정했다.

한편, 요인회전시 요인간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사각회전의 방법을 적용한 이유(표 3), 통계적으로 각 요인간 상관치가 높았던 이유(표 4), 그리고 각 변수(문항)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이유(표 3)등은 가정교육 내용의 각 요인이 서로 상관관계를 강하게 갖고 있다는 이론적 견해 때문이다. 따라서 사각회전의 방법을 사용하여,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구조계수행렬(표 3)뿐 아니라, 각 요인이 독자적으로 설명하는 분산과 모든 다른 요인과 관련되어 설명해주는 공유분산을 각각 따로이 산출해서 보고(표 5)한다.

〈표 4〉 요인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2	0.63	1.00													
3	0.43	0.40	1.00												
4	0.37	0.54	0.26	1.00											
5	0.52	0.52	0.24	0.36	1.00										
6	0.48	0.48	0.41	0.43	0.37	1.00									
7	0.39	0.31	0.29	0.22	0.31	0.44	1.00								
8	0.54	0.44	0.36	0.21	0.34	0.43	0.41	1.00							
9	0.31	0.31	0.14	0.29	0.36	0.24	0.21	0.24	1.00						
10	0.52	0.49	0.30	0.31	0.37	0.42	0.40	0.45	0.29	1.00					
11	0.43	0.37	0.33	0.24	0.29	0.42	0.54	0.38	0.20	0.31	1.00				
12	0.37	0.33	0.29	0.35	0.28	0.35	0.32	0.24	0.16	0.27	0.36	1.00			
13	0.37	0.38	0.32	0.36	0.22	0.63	0.42	0.41	0.16	0.39	0.39	0.32	1.00		
14	0.31	0.26	0.17	0.18	0.17	0.30	0.16	0.17	0.11	0.13	0.19	0.26	0.26	1.00	
15	0.46	0.34	0.21	0.20	0.39	0.27	0.35	0.46	0.18	0.33	0.33	0.17	0.20	0.14	1.00

〈표 5〉 요인 분산 퍼센트

구분 \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독자분산	1.99	1.73	2.53	1.60	1.13	1.17	1.10	1.08	1.12	1.02	1.08	1.13	0.98	1.23	0.97
합성분산	18.98	19.48	13.61	8.11	15.42	11.32	7.92	11.32	6.94	7.82	6.27	4.41	5.95	5.28	1.88
공유분산	16.99	17.75	11.08	6.51	14.29	10.15	6.82	10.24	5.82	6.80	5.19	3.28	4.97	4.05	0.91
공유분산(%)	16.33	17.07	10.65	6.26	13.74	9.76	6.56	9.85	5.60	6.54	4.99	3.15	4.78	3.89	0.87
고유치	34.84	4.75	4.57	3.43	3.02	2.81	2.29	2.20	2.04	1.83	1.76	1.71	1.69	1.59	1.51
누적분산비율(%)	33.57	38.14	42.55	45.85	48.75	51.46	53.67	55.79	57.76	59.52	61.21	62.86	64.49	66.02	67.47
독자분산(%)	1.91	1.66	2.43	1.54	1.09	1.12	1.06	1.04	1.08	0.98	1.04	1.09	0.94	1.18	0.93

3. 신뢰도²⁾

요인분석으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보통 Cronbach의 계수(α)를 산출함으로써 검증한다(이영준, 1993). 본 ‘가정교육의 내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계수 .91로 각 하위 요인별로는 .90~.92의 범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Price와 Mueller(1986)가 제시한(송순, 1994에서 재인용) .60이상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킴으로써 그 신뢰도가 검증되었다(표 6).

〈표 6〉 신뢰도; Cronbach 계수 α

요인	1	2	3	4	5	6	7	8	9	10	전체
α	0.90	0.91	0.91	0.91	0.90	0.90	0.91	0.91	0.92	0.91	0.91

V. 요약과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가정교육의 내용’을 추출해 내어, 양적 척도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사회의 급변으로 인해 부모 자신이 뚜렷한 교육관을 갖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적어도 이런 내용만’은 가정에서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다양한 준거틀을 적용하여 11개의 가정교육 내용의 이론적인 가설적 구조

를 설정하였다. 둘째, 학부형 496명과 그들의 청소년 자녀들로부터, 꼭 필요한 가정교육이 무엇인가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셋째 1,2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가정교육 내용의 문항을 작성한 후 가정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재 수집하였다. 넷째 앞의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한 가정교육 내용의 문항(총 195문항)을 척도화하기 위하여, 예비 조사를 거쳐 대단위 실증 조사를 실시했다(총 346명의 학부모 대상). 그 결과 총 10개 요인의 66개 항목이 최종적인 내용 구조로 선정되었다. 규명된 10개 요인에 관한 명명과 해당 항목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표 2〉와 〈표 3〉 참조). 우선 첫번째 요인은, 자립심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기절제를 가르치는 항목에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서, 가치관 교육으로 명명했다. 첫번째 요인에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의 봉사활동과 관련한 항목 및, 유포머가 있는 즐거운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항목등에도 고유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서, 가치관 교육과 관련한 시대배경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 요인은 사회공동체적 생활교육으로, 공익과 사회질서를 존중하며, 대인관계에서 예의를 지켜 이웃공동체와 더불어 살수 있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항목이 주요한 내용으로 규명되었다. 특히 최근 강조되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항목도 주요한 가정교육의 내용으로 규명되었다. 최근 청소년들의 성적 방종이나 무지에 의해 저질러진 충격적인 여러사건

2) 요인분석결과 총 15개 요인으로 구조화되었으나, 이론적 견해에 근거하여 최종 10개 요인으로 재구조화하여 命名했으므로, 신뢰도는 命名된 10개 요인구조에 관하여 산출하였다.

들은,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성교육의 출발점이 가정이라는 점을 깨닫게끔 준비 있다. 본 척도의 세번째 요인은 이러한 성교육과 관련된 항목들이 추출되었다. 청소년 시기의 신체·생리적인 기초지식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성적 성숙에 따른 구체적인 성행동의 관리(예; 성적충동 통제법, 피임법등)와 관련된 순결교육의 항목이 주요 내용으로 규명되었다. 네번째 요인은 조상과 전통생활 존중교육으로, 가문의식과 가례, 그리고 가훈에 관해 가르치는 항목이 주요한 내용으로 규명되었다. 특히 족보와 가례에 관한 교육의 항목에 고유치가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상숭배의식을 통한 한국적인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현대의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다섯번째 요인은 부모-자녀관계 교육으로, 부모에 대한 예의나 존경심을 바탕으로 한 효를 강조하는 한국적인 부모-자녀관계의 가치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에 바탕을 둔 솔직한 감정교환과 같은 항목이 함께 추출되었다. 여섯번째 요인은 가족단위의 여가와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항목에 고유치가 높게 나타나, 가족의 생활문화교육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학습교육은 가정교육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적인 견해(은영미, 1995)도 있으나, 입시가 중요한 자녀교육의 목표가 된 현실에서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해주는 등의 여러 활동들은 가정교육의 한 측면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원 교육이 일곱번째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여덟번째 요인은 자녀가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본인의 진로를 준비하도록 부모가 돕는 항목이 주요 내용으로 추출되어, 진로선택 지원교육으로 명명하였다. 아홉번째 요인은 흡연과 음주에 관한 자기관리에 관련된 항목에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어 자기생활관리교육으로 명명하였다. 자기생활관리 영역에는 그 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관리·건강관리·용모관리등과 관련한 항목들이다. 특히, 자녀가 건전한 소비자가 되도록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소비생활교육과 관련한 항목도 채택되지 못했다. 한편 마

지막 열번째 요인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녀친구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갖는 것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친구관계교육으로 명명하였다. 이와같은 10개 요인의 66개 항목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91의 만족스러운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실증 조사의 대상을 전북지역 거주 학부모로 한정하였고, 또 양친이 있는 핵가족 유형의 중류 계층 가정을 중심으로 표집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확대가족 유형이나 결혼가정 등의 상이한 가족 형태를 갖는 가정, 또 상류나 하류 계층의 가정, 그리고 전북이외의 다른 지역 거주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내용 구조에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후속 연구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면, 이들 변인에 우선하여 표집한 후, 그 차이가 비교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분석 과정을 통하여 성역할 정체감 교육과 소비생활 교육이 모두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성교육과는 별도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수행할 수 있는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한 교육을 척도 문항에 포함시켰으나, 이들 문항이 누락되었다. 또 합리적인 소비자로서의 행동이나, 절약·근로의식에 근거한 금전적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소비생활 교육의 문항도 역시 모두 누락되었다. 이들 영역의 문항이 누락된 이유를, 본 연구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본 척도와 관련한 척도 개정에서는 이들 교육 영역과 관련된 척도 문항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의 특성에 근거하여 볼 때,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가 그들에게 수행하는 가정교육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그들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가정교육의 像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까지의 자녀와는 상이하게, 청소년기의 가정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녀 世代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정교육이 함께 논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편에서 그들이 원하는 가정교육 像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은, 청소년기에 나

타나는 급격한 성장의 변화로, 또 독립과 의존감의 갈등으로 표현되는 심대의 돌발적인 반항으로, 종종 당혹감과 함께 교육적 신념을 상실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외국의 자녀교육 지침이나 방법이 아닌,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가정교육의 지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가 이러한 실제적 요청에 그 해답(가정교육의 지침·기준)이 되어 줄 수 있는 실용적 성과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또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로 이어지는 각 발달 시기별의 한국적 가정교육 모델 창안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그 의의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지원(1995), 가정 평화와 관용, 세계 가정의 날 기념 세미나 자료집.
- 2) 김재은(1993), 가정교육 이렇게 하세요, 샘터 유아 교육 신서 32, 샘터.
- 3) 김종서외(1983),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4) 서봉연(1991), 인간발달의 이론, 중앙적성출판사.
- 5) 은영미(1995),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교육, 나라원.
- 6) 유영주외(1990), 가족발달학, 교문사.
- 7) 유영주·어은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 학회지, 13권 1호, 145-156.
- 8) 유은희(1996), 청소년 자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 가족관계 학회지, 창간호, 2-17.
- 9) 왕석순·서병숙(1996), '현대의 가정교육 내용'에 관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권 1호, 65-83.
- 10) 왕석순(1996), 아동기 가족의 가정교육 연구, 한

양대 박사학위 논문.

- 11) 이순목(1995), 요인분석, 학지사
- 12) 이옥외(1995), 청소년 자녀에게 이렇게 하세요-사회학습이론 부모교육서, 학지사.
- 13) 이영준(1993), SPSS/PC*를 이용한 다변량분석, 석정.
- 14) 이원영외(1991), 유치원의 기본생활 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부.
- 15) 이재연·김경숙(1989), 부모교육, 양서원.
- 16) 이춘재외(1996),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17) 이홍우외(1994),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8) 장현섭(1995),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 19) 장휘숙(1995), 청소년 심리학, 장승.
- 20) 전준우(1990), 가족복지론, 홍익출판사.
- 21) 조복희외(1989), 인간발달, 교문사.
- 22) 차중환(1996), 중고등학생의 가정교육, 우석.
- 23) 지영숙(1990), 가정교육의 현대적 과제(제 1보), 인문과학 20집, 성대 인문과학연구소, 151-171.
- 24) 한국청소년 개발원 편(1993), 부모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 서원.
- 25) 한국청소년 개발원 편(1993), 청소년 문제론, 서원.
- 26) Kim & Mueller(1978), Factor Analysis, SAGE 14.
- 27) McIver & Carmines(1981), Unidimensional Scaling, SAGE 24.
- 28) Salkind(1981),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N.Y., John Wiley & Sons, Inc.
- 29) Silverberg & Steinberg(1987), Adolescent autonomy,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parental well-be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no. 3, 203-219.
- 30) 牧野カツコ(1992), 現代家族の危機, 東京, 有斐閣.